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RA 유지윤



키움증권

## 미 증시, 반도체주 변동성 확대에도, 실적시즌 기대감, 유가 약세 등으로 상승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6일(월) 미국 증시는 마이크론(+0.91%), 샌디스크(-0.03%) 등 주도주인 반도체주의 수급 변동성 확대에도, 2분기 실적시즌 기대감 속 OPEC+의 증산 결정(8월부터 일간 +18.8배럴)에 따른 유가 약세, 금리 상방 압력 제한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다우 +0.3%, S&P500 +0.7%, 나스닥 +1.1%,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2%).

지난주 메타발 AI 수요 불안 노이즈, 분기 초반의 차익실현 물량 등으로 혼란을 겪었던 미국 등 주요국 증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는 모습. 이는 유가, 금리 등 한동안 증시에 제약적인 환경을 조성했던 매크로 불확실성이 미-이란 휴전, 산유국의 증산, 6월 ISM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내 가격 지수 하락 등으로 완화된 덕분.

더욱이, 전일 메타(+3.0%), 알파벳(+2.5%), 테슬라(+6.8%), 엔비디아(+0.4%) 등 M7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나, 브로드컴(+3.7%), AMD(+6.6%) 등 마이크론, 샌디스크를 제외한 여타 반도체주들이 동반 급등하는 등 주도업종인 테크주들의 주가 회복력이 개선됐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 이제 이 같은 주가 회복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2분기 실적시즌 결과에 달려있을 예정. 이런 측면에서 전세계 주도업종인 반도체 주에서 포문을 여는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실적 결과가 2분기 실적시즌의 초기 분위기를 좌우하는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전일 국내 증시는 지난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으나, 이후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경계심리 속 메타발 약재 여진 등으로 하락 전환한 이후 장중 변동성이 확대된 채로 마감(코스피 -0.5%, 코스닥 -2.5%).

금일에는 미국 증시 강세 효과, 유가 부담 완화 등 우호적인 대외 환경 속 최근 연쇄 조정 이후 바닥 확인 기대감 등으로 반등을 시도할 예정이며, 삼성전자 2분기 잠정실적 결과에 따라 장중 반등 탄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

7월 이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의 주가 변동성 확대는 지난 2분기 중 역대급 주가 폭등에 따른 기술적인 되돌림 수요가 확산된 측면이 강했던 것으로 보임. 문제는 이들 주식뿐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 등 증시 전반에 걸친 변동성 확대까지 초래했다는 것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발 파생상품 시장의 숏감마 현상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점도 장중 코스피의 진폭을 더 키우고 있는 모습. 코스피 거래대금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평균 거래대금 비중이 6월 16.1%에서 7월(~6일) 24.0%로 확대됐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사실 6월부터 일간 +5% ~ -5%의 주가 급등락, 양방향 사이드카를 수차례 겪었음에도, 시장은 VKOSPI가 80~90pt를 넘나드는 고 변동성 환경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 여파로 단순 수급 이슈(차익실현, 비중 조절 등)로 주가가 빠지는 현상을 펀더멘털상 약재로 과잉 해석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 지난주 메타(클라우드 사업 진출), 애플(중국산 메모리 사용 요청)이 만들어낸 노이즈에 주식시장이 주가 폭락으로 반응했던 현상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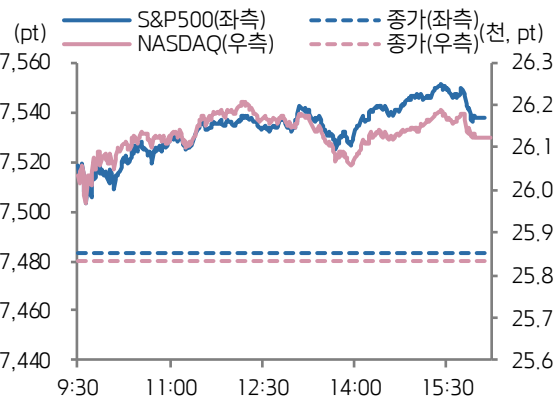
고변동성 환경은 당분간 쉽게 안정되지 않을 것이지만, 실적 등 펀더멘털상으로는 시장의 자신감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2분기 실적시즌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장 시작 전 발표 예정인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실적이 첫번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 성과급 총당금 반영 여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이들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85조원대로 형성되었으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본 시나리오로 설정된 상태.

따라서, 이번 실적 발표 후 “셀온 물량 출회 vs 업황 노이즈 극복에 따른 추격 매수”여부가 금일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후 반도체 중심의 26년 연간 이익 추정치 변화라고 판단.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26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각각 372조원, 274조원으로 6월 이후 6~7% 소폭 상향됐으며, 코스피 26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956조원으로 6월 이후 약 5% 상향에 그친 상황(vs 지난 1분기 실적시즌인 4월 1일~5월 15일 기간에는 삼성전자가 +73%, SK하이닉스가 +48%, 코스피가 +38% 이익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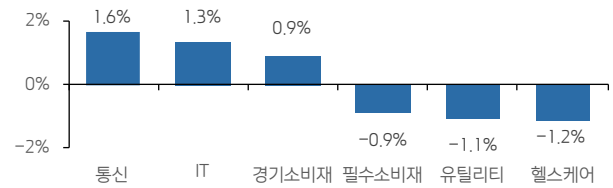
물론 주 후반 SK하이닉스 ADR도 있기에, 주도주가 만들어내는 코스피 멀티플 리레이팅(or 재평가) 여부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지만, 최근 일련의 증시 혼란과 변동성을 겪는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익 모멘텀의 연속성 확보가 더 중요해진 시점. 따라서, 이번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 이후 이번주 남은 기간 동안 반도체 포함 코스피 이익 모멘텀 재생성 여부가 주중 증시 회복력의 강도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주중 대응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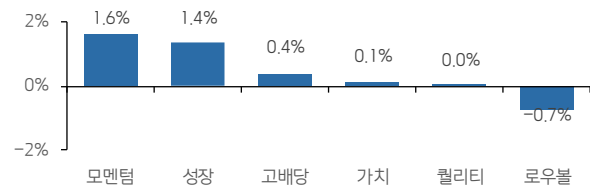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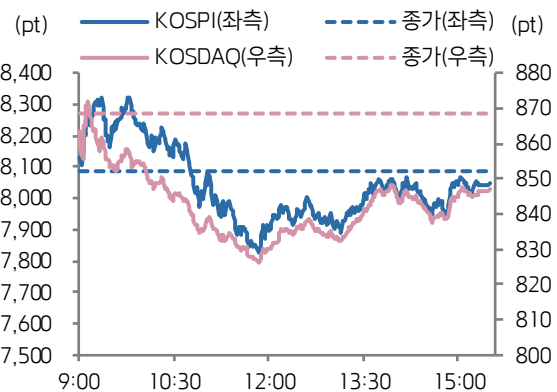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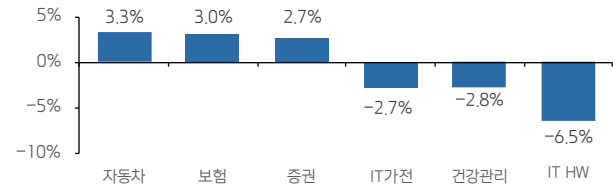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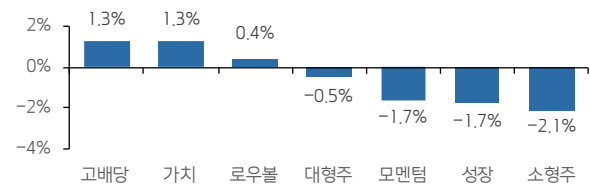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 종목      | 증가     | DTD(%) | YTD(%)   | 종목      | 증가       | DTD(%) | YTD(%)  |
|---------|--------|--------|----------|---------|----------|--------|---------|
| 애플      | 312.66 | +1.31% | +15.22%  | GM      | 77.85    | +2.43% | -3.83%  |
| 마이크로소프트 | 386.74 | -0.96% | -19.68%  | 일라이릴리   | 1,200.06 | -1.14% | +12.05% |
| 알파벳     | 366.46 | +1.82% | +17.23%  | 월마트     | 110.65   | -1.06% | -0.29%  |
| 메타      | 600.29 | +2.98% | -8.9%    | JP모건    | 337.72   | +1.43% | +6.3%   |
| 아마존     | 244.16 | +0.61% | +5.78%   | 엑손모빌    | 136.44   | -0.47% | +14.91% |
| 테슬라     | 419.77 | +6.69% | -6.66%   | 세브론     | 168.10   | -0.65% | +12.39% |
| 엔비디아    | 195.55 | +0.37% | +4.98%   | 제너럴일렉트릭 | 110.65   | -1.1%  | -0.3%   |
| 브로드컴    | 373.90 | +3.73% | +8.43%   | 캐터필러    | 969.92   | +0.66% | +70.03% |
| AMD     | 552.05 | +6.61% | +157.77% | 보잉      | 234.54   | +3.55% | +8.02%  |
| 마이크론    | 984.75 | +0.96% | +245.22% | 넥스트에라   | 87.44    | -1%    | +10.5%  |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 주식시장        |           |           |          | 외환시장      |          |          |         |         |
|-------------|-----------|-----------|----------|-----------|----------|----------|---------|---------|
| 지수          | 가격        | DTD(%)    | YTD(%)   | 지수        | 가격       | DTD(%)   | YTD(%)  |         |
| 코스피         | 8,051.33  | -0.46%    | +91.05%  | USD/KRW   | 1,531.90 | +0.12%   | +6.42%  |         |
| 코스피200      | 1,293.13  | -0.47%    | +113.39% | 달러 지수     | 100.87   | +0.01%   | +2.59%  |         |
| 코스닥         | 847.07    | -2.46%    | -8.47%   | EUR/USD   | 1.14     | +0.03%   | -2.6%   |         |
| 코스닥150      | 1,487.98  | -3.18%    | -3.84%   | USD/CNH   | 6.79     | +0.13%   | -2.6%   |         |
| S&P500      | 7,537.43  | +0.72%    | +10.11%  | USD/JPY   | 162.09   | +0.46%   | +3.43%  |         |
| NASDAQ      | 26,121.16 | +1.12%    | +12.39%  | 채권시장      |          | 가격       | DTD(bp) | YTD(bp) |
| 다우          | 53,055.91 | +0.29%    | +10.39%  | 국고채 3년    | 3.770    | +2.5bp   | +81.9bp |         |
| VIX         | 15.57     | -1.52%    | +4.15%   | 국고채 10년   | 4.205    | +1bp     | +82bp   |         |
| 러셀2000      | 3,009.54  | +0.45%    | +21.26%  | 미국 국채 2년  | 4.110    | -2.7bp   | +63.7bp |         |
| 필라. 반도체     | 12,900.14 | +2.17%    | +82.12%  | 미국 국채 10년 | 4.469    | -1.4bp   | +30.2bp |         |
| 다우 운송       | 21,871.05 | -0.65%    | +26.01%  | 미국 국채 30년 | 4.984    | -0.1bp   | +14.1bp |         |
| 상해종합        | 4,041.24  | -0.06%    | +1.82%   | 독일 국채 10년 | 2.948    | +1.3bp   | +9.3bp  |         |
| 항생 H        | 7,812.35  | +1.46%    | -12.36%  | 원자재 시장    |          | 가격       | DTD(%)  | YTD(%)  |
| 인도 SENSEX   | 78,285.07 | +0.67%    | -8.14%   | WTI       | 68.55    | -0.2%    | +20.18% |         |
| 유럽, ETFs    |           | 가격        | DTD(%)   | YTD(%)    | 브렌트유     | 71.99    | -0.18%  | +18.31% |
| Eurostoxx50 |           | 6,398.01  | -0.23%   | +10.47%   | 금        | 4,167.50 | +1.01%  | -6.15%  |
| MSCI 전세계 지수 |           | 1,128.42  | +0.41%   | +11.22%   | 은        | 62.33    | +2.07%  | -11.72% |
| MSCI DM 지수  |           | 4,842.48  | +0.21%   | +9.3%     | 구리       | 623.20   | +1.02%  | +9.68%  |
| MSCI EM 지수  |           | 1,721.50  | +2.22%   | +22.58%   | BDI      | 2,717.00 | +2.53%  | +44.75% |
| MSCI 한국 ETF |           | 189.85    | +5.39%   | +95.28%   | 옥수수      | 457.75   | +3.68%  | -0.6%   |
| 디지털화폐       |           | 가격        | DTD(%)   | YTD(%)    | 밀        | 614.00   | +2.38%  | +12.51% |
| 비트코인        |           | 63,791.03 | +1.76%   | -27.22%   | 대두       | 1,192.25 | +3.88%  | +12%    |
| 이더리움        |           | 1,792.13  | +0.91%   | -39.81%   | 커피       | 349.95   | +16.19% | +9.31%  |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7월 6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